

입계등장

## LG產電(株), 희토류 AC 서보모터 국산화

LG產電(株)(代表：李鍾秀)가 보통 자석보다 10배의 자력을 가진 희토류(稀土類) 자석을 이용한 AC 서보 모터 및 드라이버 9기종을 국내 업계 최초로 개발했다.

이로써 미쓰비시, 야스카와, 신코 등 일본 업체에 시장의 80% 이상을 점유당한 국내 시장에서 상당한 수입대체효과와 국내업체의 서보 모터 기술력을 한 단계 높일 수 있게 됐다.

희토류 자석은 일반 모터보다 소형이면서 강한 힘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얼마전부터 선진 외국업체에서 적용하기 시작한 것으로 LG산전은 이 제품 개발을 위해 지난 2년간 총 20억원을 투입했다.

AC 서보 모터 및 드라이버는 섬유기, 반도체장비, 로봇 등 각종 산업용 기계의 구동장치로 PC에 의한 제어가 가능하고, 부하(負荷)의 변동에 자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오토 튜닝(Auto Tuning) 기능 등 다양한 기능을 갖고 있어 최근 수요가 급속히 증가, '96년 시장규모가 지난해에 비해 30% 이상 늘어난 500억원 정도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 1월에 출시할 이 제품은 성능면에서 일본제품과 대등한 수준인데, 특히 속도제어 범위가 종전의 1:3000rpm에서 1:5000rpm으로 크게 향상되었고, 제어 명령에 대한 응답주파수가 일본 제품과 비슷한 200Hz로 증가했다.

또 AC 서보 모터의 경우 희토류 자석을 이용했기 때문에 외형이 종전 제품보다 1/3 가량 작아졌고, 저속에서의 회전 정밀도가 우수해졌다.

한편 이번 희토류를 이용한 신제품 출시로 국내 업체 가운데 가장 다양한 제품 모델을 구비하게 된 LG산전은 이를 계기로 국내시장에 대한 공략을 강화해 나갈 방침으로 내년 50억원 정도의 매출 목표를 세워 놓았다.

LG산전은 일본제품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신제품도 지속적으로 개발할 예정으로 내년 초에 100w 이하와 500w급 이상의 대용량 희토류 AC 서보 모터 및 드라이버를 출시할 계획이다.

## LG電線(株), SCR 생산설비 증설

LG電線(株)(代表：權炆久)는 최근 구미 공장에 SCR 생산라인 증설을 모두 마치고 이달부터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간다.

SCR(Southwire Continuous copper Rod 銅연속 주조압연 설비)은 電氣銅을 녹여 주조, 압연공정을 거쳐 지름 8mm의 구리선을 만드는 것으로 모든 전선의 기본 도체가 되는 소재다.

LG산전은 작년 9월부터 60억원을 투자해 4개월만에 설비 증설을 모두 마쳤는데 이로써 SCR 생산능력은 연간 18만톤에서 24만톤으로 33%가 증가해 세계 7위의 생산능력을 보유하게 됐다.

LG산전이 이번에 설치한 SCR설비는 초

대형 주조휠을 사용해 주조바(Bar)의 단면 감소량을 줄이고 인장강도를 높이는 등 품질의 고급화를 기할 수 있고 전기컨트롤도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방식으로 바뀌 작업성과 정밀도를 높인 것이 특징이다.

LG산전은 이번 SCR설비 증설과 함께 각종 시험과 검사를 할 수 있는 분석실을 설치해 성분, 공정조건, 외관 등의 검사기능을 강화하고 전 공정을 컴퓨터제어 함으로써 제품의 품질을 높이는데 주력했다.

LG산전은 이번에 설비를 증설함으로써 늘어나는 케이블의 해외 수요에 대처하는 동시에 국내 전선업체에도 원활한 공급을 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 大成電線(株), 작년 5,800만 \$ 수출

大成電線(株)(代表：梁始伯)는 업계의 전반적인 경기침체에도 해외시장공략에 성공,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대성전선은 지난해 전기대비 49.1% 신장된 5천8백만달러의 수출실적을 올려 전체매출액 1천44억원의 45%를 차지했다고 밝혔

다.

대성전선은 중국시장진출을 본격화하기 위해 지난해 8월 중국 廣西省 南寧市에 南寧華成 電纜有限責任公司를 준공(투자액 5백만 달러), 통신케이블 생산체제를 구축했으며 중국 남부를 중심으로 판매활동에 들어갔다.

또 '93년 베트남 체신청(DGPT)과 합작 투자한 해외현지법인 비나대성이 지난해 7월 제2공장을 준공하는 한편, 통신케이블라인을 증설해 생산규모를 銅량기준 1천톤에서 2천4백톤으로 2배이상 늘렸다.

증설된 라인은 기존의 CCP등 단순케이블이 아닌 선진국형 폼스킨(Foam Skin)라인으로 베트남 통신케이블시장 점유율을 배가시킬 것으로 대성전선은 기대하고 있다.

대성전선은 지난해 필리핀 마닐라 전력청(MERALCO)과 전력케이블 공급계약을 체결,

내년까지 3천만달러 규모의 전력 송·배전용 케이블을 공급키로 했다.

중국 및 베트남에 현지법인을 구축하고 있는 대성전선은 동남아, 중국, 일본등 58개국에 전력 및 통신케이블을 수출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5천만달러 수출탑을 수상하기도 했다.

한편, 대성전선은 국내시장은 이제 포화상태에 이른 만큼 수출시장공략은 가속화될 것이라며 올해 6천만달러의 수출실적을 포함, 1천2백억원의 매출액을 계획하고 있다.

## 祥都電機(株), 중기 우수제품마크 획득

祥都電機(株)(代表: 朴成大)의 누전차단기가 중기청으로부터 첫 중기우수제품마크획득업체로 선정됐다.

중기우수제품마크란 그동안 중소기업이 품질이 우수한 제품을 생산하고도 소비자의 인지도가 낮아 판매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아 중기청이 품질과 성능이 우수하고 기업경영상태가 타의 모범이 되는 우수한 기업을 발굴, 그 품질을 보증해줌으로써 소비자가

마크만 보고, 믿고 제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중기청에서 제정한 것이다.

이번에 중기청으로부터 우수제품마크를 획득한 제품은 ▲전력사고를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중요한 산업시설과 인명·재산의 피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제품으로 수명과 신뢰도를 향상시킨 누전차단기등 3건으로 '81년에 설립 건실한 성장을 해왔다.